

# 김정은 정권의 사상의식 통제와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

사회주의도덕을 중심으로\*

이형종\*\*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이후 강화된 사상의식 통제와 도덕 규율에 대한 북한 주민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주의도덕에 주목하였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도덕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적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사회주의도덕이 약화되어 가는 것을 예의주시하며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사회주의도덕의 하위 요인들, 즉 수령에 대한 충실성, 집단주의 의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부심과 조국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사회주의도덕은 국가의 기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포착되었다. 사회주의도덕의 핵심인 수령관과 집단주의를 개인주의와 가족중심주의, 실리 위주의 자본주의적 가치가 대체해 나가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국가의 규율 및 통제뿐 아니라 수령이라는 존재와도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다. 북한 당국의 우려처럼 사회주의도덕은 분명 약화되어 가는 듯 보이나, 그러한 주민의 의식변화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안정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사회통제, 사회주의도덕, 수령, 집단주의

\* 이 연구는 2023년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IRB 승인번호 1040460-A-2023-023).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사회주의도덕에 주목하여 북한 사회와 주민의 의식 변화를 이해하려는 데 있다. 북한 주민이 내면화하고 있는 사회주의도덕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국가의 통제와 규율에 대응하여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지, 그리고 북한 사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갈 것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화의 진전과 외부 정보 유입의 영향으로 북한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이 변화했으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사회주의 시스템의 약화나 경제난의 심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살아남으려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방식과 관련된다. 예컨대 주민들의 시장 참여 경험은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과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을 추동할 수 있었다. 사회 전반에 사회주의 이념이 약화되고 개인주의 및 소비주의가 확산되었으며, 과거 계급 및 성분 중심이었던 사회구조가 경제력을 기준으로 재구조화되었다.<sup>1)</sup> 북한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북한 체제의 내구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평가도 이루어졌다.<sup>2)</sup>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발전상으로 사회주의 문명국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제적 강국으로의 발전과

---

1) 북한 주민의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세대와 계층 재구조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6);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08); 박영자·현인애·김화순, 『북한 주민의 임파워먼트』(서울: 통일연구원, 2018); 김유연 외, 『북한 사회변동 2012~2020』(서울: 통일평화연구원, 2022); 정은미·박소혜·이종민, 『북한의 중산층』(서울: 통일연구원, 2022).

2) 김종수, 『북한 청년과 통일』(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8), 51쪽.

건전한 도덕 기풍의 확립이라는 두 개의 축을 강조했다.<sup>3)</sup> 김정은 정권의 사상의식 통제는 사회주의 도덕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는 구호가 교육·교양 정도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통제 기제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선대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2021년 당 중앙위원회 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을 ‘일심단결을 저해하는 악성종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연합지휘부를 조직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 투쟁을 집중적으로, 다각적으로 강도 높이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황색바람’을 통제·차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틀이 등장했다.<sup>4)</sup>

사실 주민의 정신적 무장을 강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한의 문화적 자원을 도덕성이라는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은폐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와 문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그 갈등을 도덕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억제하려는 것이다.

도덕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가치체계이므로 그로부터 이탈된 개인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개인의 도덕성은 내적 가치와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고, 상호 검열과 교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집단적으로 이행하는 기준점이 된다. 주민들의 사회주의도덕이 공고하다면 북한 체제가 요구하는 가치와 덕목, 행동을 수용하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인식할 것이며, 그에 반하는 의식과 행동은 스스

3) 전영선,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 검열,” 『통일인문학』, 제84집(2020), 51쪽.

4) 이러한 일련의 조치의 주된 목적은 과거 중국과 마찬가지로 형법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의식변화를 통제하려는 데 있다. 김우영·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2018), 72-76쪽.

로 금기시할 뿐 아니라 상호 규율하려는 동력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행동을 규율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행보는, 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가 확산됨에도 더 이상 주민들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며 상호 감시와 규율 기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sup>5)</sup> 주민들의 갈등과 의식 변화 문제를 더 이상 교육·교양에 의지하고 자발적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주의도덕은 북한의 사회변동과 주민의 의식변화를 탐지하기 적절한 단서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주민의 의식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사회주의도덕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sup>6)</sup>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위로부터의 강압적인 규율과 통제뿐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아래로부터의 요인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아래로부터의 요인’이라 함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성과 같은 사상의식을 의미할 수도, 혹은 체제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도 그것이 행동적으로 표출되거나 집단적으로 응집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수동성 혹은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인

---

5) “도덕적 질서는 주로 사람들의 량심과 사회 여론의 힘에 의하여 유지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덕적 규범을 위반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한테서 비난을 받으며 본인 자신의 량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런 행동을 수치로 여기게 된다. 이와는 달리 법적 질서는 주로 국가의 강제적인 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며 법적 규범을 위반한 사람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해당한 추궁과 처벌을 받는 것이다.” 최동혁, 『공산주의 도덕이란 무엇인가』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3), 10~11쪽.

6) 관련 연구는 대부분 북한의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사회주의도덕을 논의하였으며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효범·최현호, “북한 교과서 분석을 통한 청소년 가치관 연구: 고등중학교 공산주의도덕 3, 4학년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2호 (2000); 김창근, ‘북한의 소학교용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도덕 규범의 분석: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76권(2010); 박보람, “북한 사회주의도덕 개념 기초 연구,” 『윤리연구』, 제135호(2021); 김병연,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주의도덕 교과서 분석,” 『윤리교육연구』, 제55집(2020).

요인을 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의식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자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사회주의도덕에 주목한다. 주민들이 상호 규율을 통해 북한 사회나 체제의 결속을 가능케 하는 특유의 정신적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주의도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장화를 통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을 내면화하고 체제를 불신하면서도 집단적 저항으로 표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sup>7)</sup> 일상에 착근한 사회주의도덕이 체제를 이탈하거나 저항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율하는 것은 아닐까?<sup>8)</sup>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강화된 국가 규율과 통제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김정은 정권 시기 탈북한 이들 위주로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였다.<sup>9)</sup>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모집하여 최종적으로 동의한 연구 참여자는 10명이었다. 연구자는 ‘사회주의도덕이 무엇인가요?’라는 개방형 질문을 제시한 뒤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와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사회주의도덕의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 및 출신 지역 등 기본정보는 <표 1>과 같다.<sup>10)</sup>

---

7) 주민들의 불만은 분명 증가했으나, 일상의 ‘소란만 있을 뿐 집단적 저항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에는 북한의 억압적 체제, 시민사회의 부재, 대안적 담론을 이끌 조직과 주체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영철, “북한 주민의 의식과 행위: 일상의 소란과 행위,” 『북한학연구』 제7권 1호(2011), 88~96쪽.

8) 남근우, “북한 영화와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와 현실 지속성,” 162, 185쪽.

9) 이미 북한 체제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와 사후적 재평가와 재해석의 문제 등 북한이탈주민 구술 자료가 지니는 한계를 고려하며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자료를 신중하게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조정아, “북한의 교육일상 연구: 접근방법과 과제,”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2008), 254~263쪽.

10) 연구 참여자의 신분이 특정될 가능성을 유의하여 대략적으로 제시하였다. 2020년

〈표 1〉 북한이탈주민 연구 참여자 정보

구분	성별	연령	탈북 시기	입국 시기	출신 지역	면접 시기
사례 1	여성	29	2013	2016	평양	2023년 7월
사례 2	남성	30	2015	2015	평양	2023년 7월
사례 3	남성	31	2017	2017	평양	2023년 7월
사례 4	여성	31	2014	2018	양강도	2023년 8월
사례 5	여성	30	2014	2017	양강도	2023년 8월
사례 6	여성	23	2019	2019	양강도	2023년 9월
사례 7	여성	61	2013	2014	함경도	2023년 9월
사례 8	남성	42	2011	2011	평양	2023년 9월
사례 9	남성	55	2012	2013	함경도	2023년 12월
사례 10	여성	41	2019	2020	양강도	2024년 1월

## 2. 사회주의도덕

도덕은 인간생활의 규범으로서 관습, 풍속, 규범과 함께 사회적 행동의 통로이자 예의범절, 습관, 생활양식이다. 도덕성은 정신적인 자원이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방식까지 포괄하며,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등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나 규범이 내면적 원리로 작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up>11)</sup> 북한 역시 도덕에 대해 양심에 따라 스스로 지키는 행동 규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2)</sup>

---

이후 북한의 법제도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하여 당시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지 못하였던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자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11) 이순형·김창대·전미경, 『북한이탈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과 권위의식』(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4), 3~32쪽.

그러나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주의도덕은 보편적 도덕과 달리 북한 특유의 것으로서 형성된 것이다. 북한은 도덕이 사회에 따라 다르며 계급적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sup>13)</sup> 개인이기주의에 기초한 부르주아 도덕은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데 악용되지만, '낡은 사회를 반대하는 노동 계급의 투쟁 행정에서 발생'한 사회주의도덕은 그 뿌리를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에 두고 있으며, 가장 고상하고 높은 형태의 도덕이라는 것이다.<sup>14)</sup> 노동계급의 근본 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고도로 발전하였다는 사회주의도덕의 핵심은 주체사상이다.<sup>15)</sup> 사회주의도덕은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 인간<sup>16)</sup>으로서 혁명적 도덕관과 품모를 갖춘 혁명적 인재로 길러 내는 지침이며, 구체적으로 도덕교양을 통해 형성되고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주의도덕의 하위요인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집단과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윤리,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윤리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sup>17)</sup>

- 
- 12) “도덕은 외적인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입니다.” 김정일, 『김정일 선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61쪽.
  - 13) 최동혁, 『공산주의 도덕이란 무엇인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13쪽.
  - 14) 위의 책, 15~16쪽.
  - 15) “노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 실현하는 혁명사상, 사회주의사상은 바로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김경숙, 『사회주의생활윤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84쪽.
  - 16) ‘공산주의적 인간’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춘 믿음직한 역군’으로서 노동을 사랑하고 즐기며 이에 자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자 낡은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을 철저히 뿌리 뽑고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며,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사회 전체를 위해서만 일하며,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역경에서도 혁명적 낙관주의를 신봉한다. 김일성,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27쪽.
  - 17) “사회주의생활윤리의 기본내용은 그 최고표현과 집단과 개인사이에 지켜야 할 생활윤리로, 개인들사이에 지켜야 할 생활윤리로 고찰된다.” 김경숙, 『사회주의생활윤리』, 106쪽.

집단과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윤리의 하위 규범은 다시 집단생활윤리, 조국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 동지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 가정생활윤리, 사회공동생활윤리로 구분된다.<sup>18)</sup> 개인 간 지켜야 할 윤리인 일상생활윤리는 겸손, 성실, 청렴 등 여타 문화권에서도 흔히 도덕행동이라 여기는 것과 같다. 집단과 개인 간 지켜야 할 윤리 중 가정생활윤리와 사회공동생활윤리 또한 여느 문화권의 가족 및 공동체 윤리와 유사하지만, 혁명적 동지애와 사회적 노동의 중시와 같은 사회주의도덕 특유의 덕목이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다.<sup>19)</sup>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각 하위요인과 하위규범들은 서로 대등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사실 다른 윤리규범에 상위하는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sup>20)</sup> 집단과 개인의 관계는 수령, 당, 대중과 개별적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표현되는데, 수령은 집단의 중심이고 당은 집단의 중추이므로, 인간관계의 핵심은 수령과의 관계라는 논리이다.<sup>21)</sup> 사회주의도덕의 정점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고 이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주의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설명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사회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집단주의를 구현하기

18) 사회주의도덕의 하위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남근우, “북한 영화와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와 현실 지속성,” 169~170쪽 참고.

19) 본 연구는 사회주의도덕에서 보편적 도덕을 제외하고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예컨대 ‘사회공동생활윤리’에서 ‘사회적 노동의 중시’는 포함하였으나, ‘동지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 ‘가정생활윤리’, ‘일상생활윤리’는 제외하였다.

20)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공산주의도덕의 최고표현이라고 합니다.” 김정일, 『김정일 선집 9권』, 62쪽.

21)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 뇌수로서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을 대표하는 중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집단과 개인사이의 도덕적 관계와 혁명동지들사이의 도덕적관계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로부터 수령에 대한 전사의 충실성은 사회주의생활윤리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김경숙, 『사회주의 생활윤리』, 106쪽.

22) 위의 책, 198쪽.

위한 조건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하위규범들의 관계가 수평적인 것으로 착각할 만한 여지를 남긴다.

북한은 사상의식 교육·교양에서 집단주의를 매우 중요시하는데,<sup>23)</sup> 사회주의도덕의 핵심도 ‘숭고한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에 기초한 집단주의이며 그것이 보편적 도덕보다 숭고하다고 주장한다.<sup>24)</sup> 그러나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특징이 기본·본질적인 것이므로, 집단주의적 생명관은 사회정치적 생명체 내부의 수령, 당, 대중 사이의 관계를 ‘혁명적 의리와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며,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절대적 우위를 갖는다.<sup>25)</sup>

따라서 사회주의도덕의 하위요인과 규범들인 집단주의와 애국심, 혁명적 동지애, 법규범 준수, 사회적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은 모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일련의 위계가 형성된다. 최상의 가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다음이 집단주의 의식, 이를 구현하기 위한 도덕규범으로서 애국심, 혁명적 동지애, 사회적 노동의 중시, 대인간 윤리적 행동을 포괄하는 보편적 도덕은 하위에 위치한다.<sup>26)</sup> 사회주의도덕의 궁극적 지향은 북한 주민들이 개인과 개인, 개인

---

23) 박서화,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서울법학』, 제29권 1호(2021), 118쪽.

24) 집필위원회, 『주체의 륵리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88~93쪽.

25) 박서화,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125쪽.

26) 개인 간 도덕규범은 우리 사회의 예의범절과 유사한 것으로서 구성되지만, 개인과 집단 간 지켜야 할 윤리규범은 모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호이다. 이러한 위계는 사회주의도덕 교육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사회주의도덕 교과서의 목적은 ‘학생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과 사회주의도덕교양, 법 교양을 보다 깊이 있게 진행하여 학생들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하며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춘 강성국가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시

과 집단 간 예의범절과 생활윤리를 지키며 체제를 지탱하도록 집단주의 의식을 강화하여, 지도자를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공고히 단결되어 유일영도체계를 구현하는 데 있다.

### 3. 국가 규율과 주민의 의식변화

도덕은 그 사회에서 합의되어 용인되는 가치체계이므로, 개인의 도덕성은 그가 속한 집단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규범에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이끈다. 사회주의도덕은 집단주의 의식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화하려는 북한 체제의 지향점이 내재된 가치체계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규율하려는 사회주의도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경험은 어떠할까?

주민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강화되어 가는 규율과 법·제도적 통제에 피로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회고하였다. 상호 감시가 만연한 북한 사회의 특성상 국가의 규율과 통제에 불만을 느끼더라도 이를 내색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도덕 규율은 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면 국가의 통제와 처벌은 그 예상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깼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덜 깬 사람들이 있으면 깬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덜 깬 사람들이 이렇게

---

키는' 것이다. 집필위원회, 『사회주의도덕 교수참고서(초급중학교 1학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4쪽.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덜 깐 사람도 깨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게 적어요. (사례 4)

변화된 사회상에 대한 주민들의 상호 이해와 현실 인식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의 규율과 통제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덜 깐 사람들’도 점차 ‘깨기 시작’하였기에, 주민들은 사회주의 도덕 기풍을 저해하는 행위를 상호 감시하거나 신고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기층에서 수행하며 과거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법일꾼에 대한 인식도 점차 완화되는 양상으로, 도덕 기풍 규율은 느슨한 통제로 경험되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런 충성심이 정말 높았어요. 보위부 안전부 배급 딱딱 나와서 사는 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됐는데 지금은 배급제가 없잖아요. 다 장마당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는 보위부 사람들도 자기 살 궁리 먼저 하지요. (중략) 저 사람한테 누가 되지 않는 말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말해 주죠. 그럼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나는 내로서 또 성과를 하자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안 했어요. (사례 7)

국가가 주민들을 세밀하게 규율하기 어려워진 데에는 외부 문화 유입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변화뿐 아니라, 배급제의 붕괴와 같은 국가 기능의 약화도 영향을 끼쳤다. 법일꾼 역시 국가기능의 약화에 따른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었기에, 과거 국가가 부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던 도덕행동이 약화되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각자의 생존이 사회주의도덕보다 상위의 가치로 위치함으로써 사회주의도덕의 균열이 이루어졌다. 이를 고려하면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의 사회주의도덕을 강화하거나, 도덕적 해

이를 통제하는 데에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가는 주민들에게 사회주의도덕을 어떻게 교육·교양하고 있을까? 사회주의도덕 교육은 의무교육 과정인 소학교 시기부터 고급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 간 도덕규범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훈육을 통해 형성되지만, 수령에 대한 충실성, 집단주의 의식과 사회적 규범은 대부분 학교에서의 의무교육과 집단생활을 통해 형성된다. 특히 청년동맹과 같은 각종 단체에 소속됨으로써 집단생활 내에서 도덕규범을 습득하고, 상호 감시 및 통제에 의해 공고화된다. 과연 사회주의도덕은 국가가 계획하여 규율하는 방식대로 주민들에게 형성될 수 있을까?

우선 사회주의도덕의 개인차는 분명 학교교육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어떠한 이유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거나, 교육에 불성실하게 되는 등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였던 이들은 사회주의도덕이 약하며, 상대적으로 학업에 성실했던 사람들이 사회주의도덕이 높은 편이라고 보고되었다.

제가 볼 때 공부한 사람들은 그계(사회주의도덕이) 몸에 배어 있고, 여러 이유로 집안이 힘들거나 정말 나쁜 망나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부적응자들은 사회주의도덕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좀 약해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도덕 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부적응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 8)

국가는 사회주의도덕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해, 사회주의도덕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응자가 되었다며 개인의 일탈 탓으로 전가한다. 이는 도덕 기풍의 확립을 위해 통제와 규율을 강화할 명분이 된다. 도덕성 발달에 인지적 성숙과 지능,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지만,<sup>27)</sup> 도덕의식과 도덕행동은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실제 대인 경험을 통해 상호 강화·형성되므로<sup>28)</sup> 사회주의도덕의 형성에는 조직생활의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이른 시기부터의 조직생활에서 상호 감시와 비판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도덕적 규율과 통제에 보다 용이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생들은 노는 방식이 달라요. 저는 밖에서 친구들과 놀았는데, 90년대 아직 영화 볼 수 없었거든요. (중략)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에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애들이 좀 세계관이 많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애들이랑 안 놀고 방에서만 있으니. (사례 3)

평양에 거주했던 연구 참여자(사례 3)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당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방에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한다. 특정 연령대의 아이들은 조직생활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어짐으로써 집단주의 의식이 약하고 개인주의가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상매체의 유입과 소비, 개인용 무선통신기기 보급 등 물질문명 경험의 차이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출생 시기 코호트 차이로 인해 가족관계와 또래관계에서 상이한 경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도덕이 약화되는 현상을 일부 설명하는 듯하다.

---

27) 이윤희, “초등학생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11호(2019), 46~48쪽.

28) 위의 글, 58쪽.

## 4. 북한 주민의 사회주의도덕

사회주의도덕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집단과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윤리,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윤리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윤리규범은 비대칭적이며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부심, 조국애, 사회적 노동에 대한 가치의 인식 등 집단과 개인 간의 도덕규범은 집단주의를 정당화하며 이는 다시 최상의 가치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들 사회주의도덕의 각 하위규범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령에 대한 충실성

사회주의도덕의 최상의 가치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집단주의 정신을 완전하게 구현케 하는 핵심이자, 사회주의적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라고 설명된다.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내적 동력이자, 기층 주민들의 체제이탈을 방지하고 결속시키기 위해 국가로서는 가장 유의하여야 할 규범이다. 주민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어느 정도 높은지에 따라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구 결과 사회주의도덕의 핵심인 수령관에서 상당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외부 문화를 소비하는 과정에서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이상화된 수령의 허구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수령을 숭배하는 것은 국가의 요구와 통제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비법적 행위 없이 북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주민들은 점차 규율과 통제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양상이 포

착되었다.

흥미롭게도 사회주의도덕의 약화나 균열, 국가의 규율에 반하는 의식과 실천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정동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다. 공동체가 합의한 규범이자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 도덕행동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구분 짓는 가치가 도덕성이라면, 개인은 그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불안감, 처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규범으로부터의 이탈로 인해 옳지 않은 것,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비난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특정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강화 기제로서 작동하므로 해당 행동은 소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약화나 부재를 언급하면서도 별다른 불쾌감이나 수치심 등 정동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령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삶과 분리시키려는 모습으로 이해되었다. 불안정하고 불쾌한 정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분리시킨 것인지, 완벽하게 분리되었기에 정동의 변화가 관찰될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자신의 삶과 무관하다는 인식이었다.

거기서 살 때는 거부감 짜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김정일은 김정일이고 나는 나대로 돈 벌어서 뭐 해야 되고 그냥 아예 상관없는 존재예요. 나와 아예 상관없는. 단지 내가 이 나라에서 사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지, 김정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짜증도 없었어요. 거의 이제 그냥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례 1)

인민대학습당 꼭대기 중앙에 있는 게 보면 김정일이예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대열을 지나가면서 아 저기 김정일이 있구나

했는데 내가 뭐 기뻐해야 되나 설레야 하는데 그런 감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례 2)

주민들은 수령과 당의 정책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과 분리시키려는 모습이다. 동요되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가며 수령에 대해 어떠한 인식이나 판단, 감정을 투영하지 않으려 한다. 수령이라는 존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주민들은 수령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분리시켰고, 의례적이고 피상적인 도덕행동만을 실천하는 양상이 포착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수령의 행보나 당국의 선전선동 등에 불만이나 거부감을 표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느끼지 않으려 의식과 정동을 분리시킨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심리적인 거리두기와 무관심은 수령과의 정서적 단절을 의미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수령의 존재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국가의 규율에 순응하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표현하는 피상적인 도덕행동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례의 형식만 따를 뿐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 행동은 후기 소비에트 시기의 주민들이 국가가 요구하는 의례나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방식과 유사하다. 국가가 요구하는 의례적인 행위를 실천해야 비로소 ‘정상적인’ 공산주의자로 재생산되기 때문이다.<sup>29)</sup>

이처럼 북한 주민들은 수령과 심리적으로 단절된 채 의례적인 도덕행동만을 실천하고 있었다. 여기서 의식과 감정이 분리된 피상적인 도

---

29) 알렉세이 유르차크(Alexei Yurchak),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김수환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2019), 55쪽.

덕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약화된 국가 기능과 체제의 변화를 수용하며 생존윤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나름의 대처일까? 아니면 공고한 규율과 통제하에서 유리된 채 살아감으로써, 집합행동과 저항이 나타나기 어려워지는 심리적 기제의 가능성일까? 분명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도덕 기풍 강조와 사상의식 통제를 통해 목적했던 바가 저항과 체제 내부의 불안정성을 불식시키고 주민들을 결속시키고자 함이었다면,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체제 내의 불안정성이 소거된다는 사실이다.

## 2) 집단주의 의식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주의도덕의 가치는 집단주의 의식이다. 집단주의는 궁극적으로 당과 수령을 보위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생활뿐 아니라 의무교육 과정과 인민반 등 조직생활을 통해 형성되고 또 강화되어 유지된다.

그러나 북한의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와 실리주의로 대체되는 양상으로서 상당 부분 약화되어 가는 듯 보인다. 주민들은 집단주의에 대해 ‘나보다 동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거나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려는 마음’이므로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으므로 실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고하였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뭔가 이득이 없이 그냥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집단주의가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오히려 한국보다 북한이 개인주의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나마 한국은 어느 정도 개인주의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눈치를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북

한은 노골적인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 일이 아니면 절대 간섭을 안 해요. (사례 1)

도덕의식의 측면에서 집단주의는 바람직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도덕행동으로서 실천하지는 않는다. 집단주의 의식이 약화되었다는 분석보다, 행동을 추동하는 내적 가치체계가 실리주의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이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의식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손쉬운 방법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집단주의 의식과 공산주의자로서의 품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주민들은 자신이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인식하여 그에 더욱 반하려는 태도 저항을 형성할 가능성이 고려된다.<sup>30)</sup> 태도 저항으로 형성된 의식이나 태도는 기존의 태도를 더욱 강화하므로 이후의 변화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실리 위주의 가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국가는 사회주의도덕의 약화라며 통제하려 하므로, 집단주의는 약화되고 개인주의, 실리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셈이다.

주민들의 사회주의도덕의 행동적 실천이 가장 약한 측면은 집단주의 의식이었다.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가치 판단이 집단주의를 대체하고 있기에, 주민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실리를 중시하는 가치 체계는 집단주의 의식뿐 아니라 개별 구성원들의 연결성 자체를 약화시킨다.

집단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이거는 뭐 영화나 교

---

30) 정재욱·김혜숙, “가치 및 원칙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1권 4호(2017), 203~224쪽.

양 자료에서는 볼 수 있는데 집단주의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그런 걸 보니까 아예 영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나한테 닥쳐도 그냥 뭐 그냥 나는 나고 그거는 영화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아예 분리를 해 버리더라고. (중략) 여자들이 함숙하면 다투고 싸울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싸워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서로가 친하지도 않는다는 거고 절대 부딪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없어. (사례 1)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공동체의 이익과 공공선 등 집단주의 의식에 있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경우 이타적인 행동은 증가하게 마련이다.<sup>31)</sup> 바람직한 행동을 통해 자신과 무관한 불특정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려는 인정욕구는 긍정적인 자존감의 근간을 형성한다.<sup>32)</sup>

그러나 주민들은 자신을 관찰하는 타인의 시선마저도 실익에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의식과 존중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이 감소한다면 집단의 응집력은 약화된다. 타인에게 관여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인 보상과 이득이라는 데에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동의했다.

주목하여야 하는 지점은 이러한 ‘노골적인’ 개인주의의 확산과 타인과의 심리적 단절로 인해 공동체의 불협화음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사적인 관계에서는 은밀하게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공적인 상황에서는 규율에 복종하는 양상을 설명한다.<sup>33)</sup> 타인과의 반

---

31) 김요한, “진화심리학의 도덕 개념에 대한 비판적 연구,” 『동서철학연구』, 제91호(2019), 359~363쪽.

32) 악셀 호네프(Axel Honneth),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옮김(고양: 사월의 책, 2011), 278쪽.

목과 갈등은 공동체의 응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것이 확산되어 사회와 체제의 불안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다면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표현하지 않는다. 부조리한 체제나 열악한 환경도 자신의 가시적 이익과 무관하다면 무시하거나 심리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약화된 집단주의 의식은 북한 사회의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에도 오히려 사회와 체제의 불안정성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나치즘에 반대했던 사람들에게서 적극적 저항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에 대해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사적인 영역으로의 후퇴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34)</sup> 당국의 사회주의도덕 규율과는 일치하지 않는 방향이지만 ‘아래로부터의 요인’들이 응집되어 저항이나 집합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이다.

### 3) 사회주의 자부심과 조국애

내 조국이 북한이라는 게 선뜻 얘기를 못했던 게 자부심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20년 넘게 사회주의 자부심, 사회주의 우월성 교양을 받았지만 북한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 거죠. (사례 2)

사례 2는 탈북하기 몇 년 전 북한에서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자신

---

33) 정영철, “북한 주민의 의식과 행위: 일상의 소란과 행위,” 94~96쪽.

34) 데틀레프 포이케르트(Detlev Peukert), 『나치 시대의 일상사: 순응, 저항, 인종주의』, 김학이 옮김(서울: 도서출판 개마고원, 2003), 110쪽.

의 조국이 부끄러웠던 경험에 대해 회고했다. 당시 남한에 대한 동경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탈북할 마음도 없었다고 보고되었기에, 북한 주민들이 조국에 대해 느끼는 인식과 감정을 엿보기 적절한 이야기이다.

북한의 선전·선동과 우월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부심과 우월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조국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즉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수치심은 사회적으로 요구되거나, 스스로 기대하는 어떠한 모습에 부합되지 않는 자신에 대한 괴리감을 느낄 때 유발되는 감정이다. 일반적으로 모욕, 조롱이나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을 경험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 개인 내적으로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타인으로부터 비난·거절받을 만한 요인이 내면에 존재한다고 인식할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즉 실제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이 없어도, 조국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선뜻 얘기하지 못했던 사례 2의 경험처럼 북한이라는 조국의 모습이 우월하지 못하고 열등하다는 인식으로서 주민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사례 2의 출신 국가에 대한 수치심은 북한이라는 조국이 자신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빈곤한 국가라는 경제적 상황이나 독재국가라는 오명, 폐쇄적이고 부조리한 체제의 특성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수치감의 핵심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국가의 교육·교양은 주민들의 현실 경험과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부끄럽더라도 북한이라는 장소는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시공간적 기억으로서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일부이기도 하다. 분명 문제가 있고 부조리하지만 자신과 부모 등 혈육이 출생한 국가이고 살았던 터전이니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지기를 바랄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나 우월성, 조국애가 아니라 국가가 요구하는 도덕행동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었다.

사상성 그걸 풀어서 하면 사회주의 체제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탈을 한다는 거는 배신한다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조국이나 부모 형제를 배신한다는 거잖아요. 충성심이 높아서 도망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이자처럼 처벌이나 뭐가 이런 게 두려워서 남아 있는 가족이나 이런 게 두려워서 못 가는 게 맞아요. 충성심보다는 사실은 나 혼자 살고 있으면 하는데 가족들 때문이겠죠.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저는 제가 희생을 해서도 가족을 뭔가 이제 지켜야 된다는 게 훨씬 큰 것 같더라고요. (사례 1)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겨진 가족이 북한에 있는 경우 체제를 완벽히 부정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남한에서의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도 체제를 이탈하지 못하거나 비법·불법적 행위를 유의했던 것은 가족 때문이었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나 조국에 대한 충성심, 우월감이 공고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라는 매개변인으로 인해 주민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적어도 이탈하지 않는 식으로 도덕행동이 규율된다. 즉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은 주민들의 가족응집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례 3은 자신이 조국애가 강하다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불꽃는 도가니’처럼 일본과 미국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피해자라는 고통스러운 감정과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강렬한 조국애로서 충동적으로 경험되는 모습이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 같아요. 저의 불 끄는 도가니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적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 적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조국을 위하는 길이다. 가족과 부모를 위한 길이고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조국해방전쟁이라고 그런 거 보면서 적개심이 생겼죠. 저걸 나가서 다 죽여 버리겠다. 적개심이 생기니까 그 표출할 때가 싸우러 가는 거죠. 막 평양까지 들어왔잖아요. 신천에서 막 학살했다는 것도 미국 사람들이 막 못 막아 죽이고 북한 그런 영화 있거든요.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 그래서 미국과는 하나를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사례 3)

북한은 어린 시기부터 학생들에게 제국주의로부터 침략받은 고통의 역사를 교육하고, 반미·반일 감정을 고취시켜 북한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복수심과 애국심을 지녀야 할 것을 주문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례 3과 같이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를 조국애와 혼동하여 지니고 있으며, 비록 왜곡된 것일지라도 실제 행동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사상 의식 교육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분노의 증폭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이차적으로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막 뭔가 끄는다고 그랬잖아요. 불 끄는 도가니라고 적개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개심 같기도 하고 분노 같기도 한데, 저 말고도 친구들도 다 적개심이 있죠. 뭔가 이렇게 되게 나쁜 놈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혔던 역사가 있고 이러면 적개심이 생기면 항상 화가 나 있으니까 자주 싸우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끼리 싸우고 길에서 싸우고 모르는 사람들 싸우고 술 먹으면 싸우고 패싸움도 많이 했어요. 북한 사회가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싸웠는지 이제처럼 생각해 볼 때도

그게 표출할 데가 없잖아요. 뭔가 이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사례 3)

항상 적개심과 분노를 지닌 채 ‘막 뭐가 끓는 것처럼’ 표출하여야 하는 강렬한 충동으로 인해, 폭력, 갈취, 패싸움 등 청소년기 일탈을 넘어 성인기까지 범죄행위에 준하는 행동이 빈번하였다. 친구들도 대부분 유사한 감정 상태였으며, 비슷한 의식과 정동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패싸움이나 폭행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으며 이는 북한 사회에서 쉽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충동적으로 표출되어 타인을 침범하려는 강렬한 감정은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북한에서의 고난한 삶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당국의 역사의식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한 적개심의 증폭에서 비롯되는 양상이다. 국가의 사상·의식 교육·교양은 왜곡된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헌신을 강요하며, 일부 주민들에게 분명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 4) 사회적 노동의 중시

국가는 주민들에게 경제발전과 물질문명 향상을 약속하며 노동을 부과해 왔다. 노동력 동원을 통해 경제적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점차 배급이 원활히 공급되고 부족한 전력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희망을 고취시켰다. 국가의 약속에 동의한 주민들은 노동을 제공하였으며, 북한 당국은 그 노동에 대해 가치 있는 것이라 선전하였다.

전기 공장이 돌아가야 불이 오는 거잖아요. 돌아 안 가니까 불도 안 와요. 근데 막 평양 같은 데 보면 tv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막 밤에 막 밝아요. 그럼 평양은 배급을 준단다. 근데 우리도 좀 더 잘살면 우리도 배

급을 받을 수 있단다. 이런 희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발전소 막 세운다고 했었거든요. 그걸 세우면 우리도 불을 볼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사례 6)

어차피 돈도 못 받고 고생만 하는데 아무도 안 가죠. 돈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노동은 되게 중요한 거다. 사회주의 건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노동이다. 청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막 선동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니죠. (사례5)

주민들이 기대했던 경제발전은 여전히 요원하고, 약속되었던 전력문제를 해결이나 배급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회적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돈이나 배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민들은 국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가 요구하는 사회적 노동에 대한 기피는 주민들에게 일반적이며, 조직생활에서 부과되는 노동은 가능하다면 대금을 지불하고 회피하려 한다.

사회주의 체제는 노동자가 우선이며,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는 사회적 노동이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선전하는 것과 실제 주민들의 삶은 이격되어 있는 모습이다. 인민반 회의와 구역 청소부터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공동 작업까지 대가를 제공하고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이 물질적 교환가치로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주민들은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과 교환가치를 분명히 고려하고 있었다. 국가가 부과하는 사회적 노동은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것이지만 ‘노동’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국가가 시키는데도 같은 시간을 소모하잖아요. 거기엔 일도 대가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다른 장사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먹고사는 데 엄청 편하지 않아요. 이제 청소 같은 걸 빠져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일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진 것 같은데 공동으로 이제 도로를 쓴다든지 인민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노동이 아니라. 노동은 중요한 거고 뭔가를 하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례 6)

주민들은 재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발적 노동과 국가가 부과하는 사회적 노동을 분명히 구별한다. 대가가 따르는 노동은 가치가 있으며,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사회적 노동은 부담만 가중시킨다. 국가는 요구하지만 가치가 없는 노동을 기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은 오히려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노동은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죠. 삶이 목적이 더 강해졌으니까. 노동의 가치는 없지만은 그 삶에 대한 그 의욕은 더 강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비법적인 걸 해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아지고. 그럼 국가가 부여한 직업이나 공동체적인 노동에 대해서는 가치가 저하됐지만 노동 자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중요해졌다. 사람들이 인식이. (사례 4)

사례 4의 이야기처럼, 삶의 목적이 더 강해진 만큼 주민들에게 노동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한 현실 경험은 사회주의도덕의 약화를 방증한다. 국가가 규율하는 사회주의도덕과 대립하는 생존윤리라는 가치체계가 충돌하는 합법과 비법의 경계에서 주민들은 무엇보다 노동

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 5. 나가며: 약화된 사회주의도덕과 사회변동의 가능성

본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주의도덕에 대한 인식과 실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일차적으로 북한 주민 특유의 도덕성이라는 정신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차적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체제 결속과 이탈 방지를 위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화가 진전되고 다양한 외부 문화가 유입되어 소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 생활양식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은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적인 것과 투쟁해야 하며, 건전한 도덕 기풍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제도의 정비와 통제기구의 강화를 단행했다.

사회주의도덕 교육·교양은 정규교과 외에도 가정에서의 교육과 훈육, 또래 집단과의 교류와 조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반복적인 교육과 선전선동에 노출되어 도덕의식이 형성되며, 공동체 내에서 교류와 상호 감시 및 규율을 통해 도덕행동이 강화·유지된다. 그러나 시장화의 진전과 향유하는 외부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기존의 규범 질서와 가치체계 측면에서 점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체계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집단주의 의식은 국가의 기획과 달리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었다. 그 자리를 실리 중심의 가치와 개인주의, 가족 중심의 가치체계가 대체하는 모습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민들이 수령의 존재와 당국의 정책 등

국가가 규율하는 가치체계와 엄격한 통제 시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인식과 정동의 측면을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은 국가의 규율에 의례적으로 순응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며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나가고 있었다. 수령관과 집단주의라는 사회주의 도덕의 핵심적 가치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의례적인 도덕행동은 지속되므로 당국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체제는 안정화되는 모순된 양상이 포착되었다.

한편 당국이 주도하는 사회주의도덕 교육이 일부 효과를 보였던 지점은 조국애와 관련된 측면이었다. 북한의 왜곡된 역사관과 사상의식 교육·교양에 영향을 받아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를 품고 성장한 일부 청년층의 경우, 기회가 맞아떨어진다면 충동적이고 폭발적인 방식의 애국적 희생을 실천하려 할 가능성이 감지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도덕 감정이나 조국애가 아니라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려는 방식에 가깝다. 공산주의자의 도덕적 풍모로서 체제를 위협하는 원수에 대한 증오를 독려하는 식으로 유년기부터 국가에 의해 삽입된 정동으로 인해 주민들은 다양한 폭력을 행사·용인하거나 연루됨으로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적개심과 분노를 고취하여 양생한 유사-조국애는 폭력이 용인되는 북한 사회의 불안정성과 맞닿아 있다.

주민들은 국가의 요구하는 사회적 노동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만큼 노동의 가치에 대해 더 현실적이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물질과 재화, 노동과 기회비용, 시간의 교환가치를 인식하고 국가의 규율과 불법·비법의 경계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능동적으로 노동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의식변화와 생존윤리의 실천은 약화된 사회주의도덕의 방증이기도 하였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사회주의도덕 기풍의 확립,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적 행태와의 투쟁을 강조했던 이유는, 주민들의 의식 및 가치관 변화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약화된 사회주의도덕, 수령관과 집단주의의 부재는 국가와 수령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분리시키는 심리적 기제로서, 어떠한 저항의 운동이나 집합행동으로 구성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의 기대와 통제에 반하는 도덕의식의 형성과 의례적인 도덕행동 실천이 오히려 북한 사회와 체제의 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법·제도 정비와 사상의식 통제 노력은 주민들의 사회주의도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회주의도덕이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내적 가치체계로서 순수한 의미의 도덕성과 접점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불확실하다. 도덕성은 주체의 행위 자체에 대한 절대적 판단이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즉 북한 지배층은 주민들의 (사회주의)도덕성이 약화된다고 비판하며 경계하고 있더라도, 주민들은 국가의 시도와 통제와 무관하게끔 각자의 생존윤리와 연대를 통해 살아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때 불안이나 수치심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사회주의도덕을 도덕성과 같은 의미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도덕은 여타 체제 존속을 위한 선전·선동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사회주의도덕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사회주의도덕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지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북한 체제의 근간인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집단주의 의식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별, 세대별 차이를 분석할 만큼 심층면접 참여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미 체제를 이탈한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

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사회주의도덕을 가늠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근본적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불어 심층면접 외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상의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설정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도덕적 가치판단과 도덕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는 등, 사회주의도덕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제안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의의와 여러 제한점은 사회주의도덕에 대한 후속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투고: 2024.07.03. / 수정: 2024.07.31. / 채택: 2024.08.07.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 김경숙, 『사회주의 생활물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 김일성,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 집필위원회, 『사회주의도덕 교수참고서(초급중학교 1학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 집필위원회, 『주체의 물리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최동혁, 『공산주의 도덕이란 무엇인가』(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 김유연·박상민·이혜원·송원준·이종민·정은미·이정철, 『북한사회변동 2012-2020』(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 김중수, 『북한 청년과 통일』(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8).
- 박영자·현인에·김화순, 『북한 주민의 임파워먼트』(서울: 통일연구원, 2018).
- 유르차, 알렉세이(Alexei Yurchak),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김수환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2019).
- 이순형·김창대·전미정, 『북한이탈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과 권위의식』(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4).
-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정은미·박소혜·이종민, 『북한의 중산층』(서울: 통일연구원, 2022).
- 조정아·서재진·임순화·김보근·박영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08).
- 포이케르트, 데틀레프(Detlev Peukert), 『나치 시대의 일상사: 순응, 저항, 인종주의』, 김학이 옮김(서울: 도서출판 개마고원, 2003).
- 호네트, 악셀(Axel Honneth),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옮김(고양: 사월의 책, 2011).

#### 2) 논문

- 김병연,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주의도덕 교과서 분석: 초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55집(2020), 365~393쪽.
- 김우영·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2018), 43~83쪽.
- 김요한, “진화심리학의 도덕 개념에 대한 비판적 연구,” 『동서철학연구』, 제91호(2019), 353~376쪽.
- 김창근, “북한의 소학교용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도덕 규범의 분석: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76권(2010), 75~97쪽.
- 남근우, “북한 영화와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와 현실 지속성: 북한 주민들은 왜 저항하지 않는가?” 『아태연구』 제21권 4호(2014), 161~191쪽.
- 박보람, “북한 사회주의도덕 개념 기초 연구,” 『윤리연구』, 제135호(2021), 191~212쪽.
- 박서화,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서울법학』, 제29권 1호(2021), 111~146쪽.
- 이윤희, “초등학생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11호(2019), 43~62쪽.
- 이효범·최현호, “북한 교과서 분석을 통한 청소년 가치관 연구: 고등중학교 공산주의도덕 3, 4학년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2호(2000), 235~267쪽.
- 전영선,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 검열,” 『통일인문학』, 제84집(2020), 43~70쪽.
- 정영철, “북한 주민의 의식과 행위: 일상의 소란과 행위,” 『북한학연구』, 제7권 1호(2011), 75~101쪽.
- 정재욱·김혜숙, “가치 및 원칙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1권 4호(2017), 204~224쪽.
- 조정아, “북한의 교육일상 연구: 접근방법과 과제,”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2008), 230~271쪽.

# The Kim Jong Un Regime's Control of Ideological Consciousness and Change in North Korean People's Minds

## Focusing on Socialist Morality

Lee, Hyungjong (Kyungnam University)

North Korea has emphasized the need to establish a 'socialist' moral atmosphere for its residents and has strengthened legal control related to it. This can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actively monitor and control the weakening socialist morality of the entire society. In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of North Korean defectors were conducted on the factors of socialist morality, namely loyalty to the leader, collectivist consciousness, pride in the socialist system and love for the fatherland, and awareness of the value of labor. It was found that socialist morality is changing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state's plan. The core of socialist morality — loyalty to the leader and collectivism — is being replaced by individualism, family-centeredness, and capitalist values that focus on practicality, and residents are trying to distance themselves psychologically from not only the state's discipline and control but also

from the existence of the leader. Although socialist morality certainly seems to be weakening a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feared, such changes in the residents' consciousness paradoxically imply the possibility of stabilizing the North Korean system.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control, socialist morality, Supreme Leader, collectivism